



소중한 사람에게 '아트상품' 선물하세요

우제길 아트·인스나인·Jace Lee·다담, 수공예품에 예술 접목 차별화

설날(2월10일) 고마운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할까. 광주·전남지역에는 고가 값비 세트 등 흔한 선물보다 실용적이고 주는 이의 정성을 담은 선물들이 많다.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 작가와 업체들이 만든 다양한 '아트 상품'을 선물하면 어떨까. 지역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들어간 넥타이, 실크 스카프, 찻잔·반상기 세트, 나무볼펜 등 실용적이면서도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아트 상품'들을 소개한다.

◇우제길 아트=우제길 미술관에 가면 누구나 한번쯤 목에 두르고 싶은 스카프와 넥타이가 눈에 띈다. 서양화가 우제길씨는 20

여 년 전부터 자신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 상품을 개발해왔다. 이 지역 최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판매 됐으며 국제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선물용으로 제공됐다.

우씨는 순수미술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크넥타이와 실크스카프, 면스카프에 자신의 작품을 입히는데 주력해 왔다. 이미 잘 알려진 넥타이의 경우 그 종류만도 300여 종이 넘는다. 또 이회호 여사가 착용하기도 했던 스카프도 20여 종이 달한다. 가격은 넥타이 8만원, 스카프 20만~50만원선. 문의 062-224-6601.

◇주인스나인=2001년 설립된 인스나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인 전문업체다. 지역 문화가 박태후 화백의 작품을 생활도자기에 접목한 제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박 화백의 '참새 시리즈'를 인쇄한 반상기, 찻잔 세트는 인스나인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주부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싶은 제품이다. 단아한 자기에 수놓아진 작품 이미지가 인상적으로 생활도자기를 넘어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상기·찻잔·커피잔·다기·머그컵 등 생활도자기만도 모두 100여종에 달한다. 공



광주시립미술관 1층에 있는 카페 다담에서 전시중인 아트 상품.

5개 1세트 5만5000원선(대접 동일), 커피잔 2개 1세트 5만원선, 에스프레소 잔 3만5000원~3만8000원선. 문의 061-373-9922.

◇Jace Lee=갤러리 리체 이양숙 관장이 만들어 갤러리 한쪽에 전시·판매하고 있는 아트 상품들도 인상적이다. 10여년 전부터 아트 상품을 개발해온 이양숙 관장은 지난해 5월 'Jace Lee'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빈센트 반고흐 등 유명화가의 명화를 차

용한 디자인 상품부터 직접 테마와 이미지를 정해 생산한 상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Jace Lee 상품은 같은 컬러에 같은 패턴을 가진 제품이 7개를 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가격대는 여성용 장지갑 25만원, 남성용 머니클립 12만원, 명함지갑 8만원, 넥타이 명화 시리즈 12만~18만원, 숄 16만원, 열쇠고리 8만원선이다. 문의 062-412-0005.

◇다담=광주시립미술관 1층에 위치한 카페 다담에서도 다양한 아트 상품들을 만

날 수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강덕순씨의 딸이자 영화배우인 이미도씨가 직접 만든 다양한 머리띠, 브로치, 스카프 등의 수공예품들이 미술관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강씨가 전국 각지의 공방을 돌면서 수집한 다기세트와 수공예 금속제품들도 있다.

반지 1만~1만5000원, 머리핀 2000원~. 스카프 8만원, 금속벽장식 4만8000원~. 다기세트 12만~42만원. 문의 062-522-4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지호 생가 문화재 영상으로 남긴다

市, '기록화 사업'... 11억8000만원 들여 보수·정비

한국화단의 거목 오지호 선생이 살았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거옥(시지정 기념물·사진)을 영상에 담은 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추진된다. 나전칠장(시지정 무형문화재) 김기복 선생의 작업과정도 영상에 담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억8000여만원을 들여 문화재 기록화 사업과 목조 문화재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록화 사업'대상인 오지호 선생 거옥을 영상촬영하고, 건물규모·건축방식 등에 대한 정밀 실측작업을 벌인다. 이는 건물 원형이 훼손됐을 경우 복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개척한 오지호 선생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지산동 초가에서 창작활동을 벌여왔다.

나전칠기 부문 무형문화재인 김기복

'EDITION' 원작 못지 않은...

3월10일까지 갤러리D

관화나 사진 작품에는 에디션(EDITION)이 존재한다. 작품을 찍어내거나 인화하는 횟수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에 따라 작품의 가치도 달라진다. 오늘날 미술작품에서 에디션의 의미는 사진과 판화를 뛰어넘어 다른 영역까지 확장돼 가고 있다.



오승운 작 '풍수'

광주시 동구 중앙로에 위치한 갤러리D에서 오는 3월10일까지 열리는 신년 기획전 'EDITION'전은 에디션 작품의 경계가 확장돼가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인의 삶을 동심의 상상력과 순수한 감정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장욱진 화백의 '풍경'(1989)과 꽃과 여인을 통해 자연에 대한 꿈과 낭만을 표현한 천경자 화백의 '운사월'(2006), 반복을 통해 얻어진 단색의 선으로 무한성을 보여준 박서보 화백의 '묘법 No. 4-06'(2006), 오방정색을 기조로 한 화려한 색채와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보여준 오승운 화백의 '풍수(2003)' 등 회화작품이 관화로 선보인다.

단순한 인쇄물 형태의 복제물에서 벗어나

원작의 중요한 특징들을 담아낸 영국 대표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에디션도 눈여겨 볼만하다. 원작이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골 이미지에 덧 붙였다면 에디션에서는 다이아몬드 가공과정에서 나온 가루를 두껍게 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궁고귀아처럼 고소하고 따신 '살롱음악회'

아외 클래식 음악회인 광장음악회(단장 정찬경)가 마련한 '살롱음악회'가 26일 오후 5시30분 광주 동구 희망나눔치과공공체 강당에서 열린다.

광장음악회는 성악가 정찬경(55·바리톤)씨와 공인기획자 한유진(45)씨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매월 금남로 근린공원에서 공연하고 있는 음악회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살롱(salon) 음악회'를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메조 소프라노 임선아,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홍선희, 바

리톤 정찬경, 피아노 나원진 외에 클래식 기타 서만재, 바이올린 차민진, 플룻 이상열 등이 출연한다.

기획자 한유진씨는 "광장음악회를 사랑해주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첫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광장에서만 듣던 그동안의 음악회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권은 3만원이며 관람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문의 010-2037-352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장음악회 26일 희망나눔치과공공체 강당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출발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패속선 흑산도홍어삼합 중식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패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일주관광(15,000원)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